

간호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자기조절, 셀프리더십이 진로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박소영¹, 조옥희^{2*}

¹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²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nfluences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 Career Self Regulation, Self Leadership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Soyoung Park¹, Ok-Hee Cho^{2*}

¹Graduate cours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자기조절, 셀프리더십이 진로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 215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진로 적응력은 진로 자기조절, 셀프리더십,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간에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 전공만족도, 진로 자기조절,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진로 자기조절 정도를 향상시키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간호교육, 셀프리더십, 진로 적응력, 취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 career self regulation, self leadership on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 Subjects were 215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Chungchung-Namdo.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Career Adaptability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 regulation, self leadership, rational decision making type, intuitive decision making type. These variables explained 62.7% of the variance on nursing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self leadership, career self regulation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type will help to increase nursing students's career adaptability.

Key Words : Nursing Student, Nursing Education, Self leadership, Career Adaptability, Employment

*Corresponding Author : Ok-Hee Cho(ohcho@kongju.ac.kr)

Received February 5, 2020

Accepted April 20, 2020

Revised March 19,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직종, 고용 불안정, 이직 등으로 인해 대학에서의 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신규간호사의 경우,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적응과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가치충돌, 불분명한 역할 등의 이유[1]로 첫 직장에 대한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33.9%로[2], 이는 개인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병원과 사회에 미치는 손실 또한 매우 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같은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하여 [3] 취업 후 업무부적응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4].

진로적응력이란 일의 형태나 근무형태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능력을 의미한다[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적응력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6], 진로결정 자율성[7]이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았고, 사회적 지지와 개인 성격 또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8].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채 입사한 경우, 상당수가 자신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직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9]. 이와 같이 일반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은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키고[10], 성공적인 임상실습경험은 직업사회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10], 자기주도학습능력[12], 전공만족도[13]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았다고 보고되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결정해 나가는 방식들을 의미하며 [14],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한다. 합리적 유형은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논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유형이며, 직관적 유형은 논리적인 평가의 과정 없이 직관에 의존하는 유형이고, 의존적 유형은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들은 상호 독립적 또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합리적 유형이 진로결정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유형으로 평가한다[15].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쳐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므로[14], 간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진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진로자기조절은 목표 행동의 시작과 진행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방해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며 목표 성취에 도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16], 진로자기조절능력이 높은 대학생은 진로탐색 행동을 활발하게 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17]. 따라서, 진로자기조절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 적응력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내적 리더십으로부터 출발하여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능력으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므로, 성공적인 진로개발 및 진로 전환 시기에 진로적응에 도움이 된다[8]고 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실무현장에서 자율성이 요구되는 간호사의 핵심역량이며,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자기조절 능력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취업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과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 진로적응력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적응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 진로적응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자기조절, 셀프리더십, 진로적응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남도 K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의 재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회귀 분석을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α)=.05, 검정력($1-\beta$)=.95, 효과 크기=.15(중간 크기), 예측 변수 16개로 하였을 때, 최소 204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10%)을 고려하여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5명을 제외한 21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년, 종교 여부, 동아리 활동, 주관적 성격, 건강상태,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학업성적, 입학의 주된 동기, 취업 경험, 주 상담자 등 13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2.3.2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Harren [19]이 개발한 진로 결정 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를 고향자[20]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의 5점 척도로, 합리적 유형 10문항, 직관적 유형 10문항, 의존적 유형 10문항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점수의 유형이 개인이 진로 결정을 내리는 유형을 의미한다[20].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고향자[20]의 연구에서 합리적 .81, 직관적 .80, 의존적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 .81, 직관적 유형 .80, 의존적 유형 .85였다.

2.3.3 진로 자기조절

진로 자기조절은 김민정과 김봉환[16]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의 5점 척도로, 계획과 점검 5문항, 긍정적 사고 5문항, 진로 피드백 5문항, 진로 환경 조성 5문항, 진로 몰입의지 5문항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25점부터 최고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자기조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김민정과 김봉환(2014)[16]의 연구에서는 계획과 점검 .76, 긍정적 사고 .80, 진로 피드백 .80, 진로 환경 조성 .79, 진로 몰입의지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93 (계획과 점검 .85, 긍정적 사고 .82, 진로 피드백 .77, 진로 환경 조성 .90, 진로 몰입의지 .90)였다.

2.3.4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21]이 개발한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신용국 등[22]이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5문항의 5점 척도로, 자기 목표 설정 5문항, 자기 보상 3문항, 자기 체벌 4문항, 자기 관찰 4문항, 자기 단서 2문항, 자연적 보상 5문항,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5문항, 자기 대화 3문항, 신념과 가정 분석 4문항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소 35점부터 최대 1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신용국 등[22]의 연구에서 .70~.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 (자기 목표 설정 .87, 자기 보상 .79, 자기 체벌 .84, 자기 관찰 .79, 자기 단서 .76, 자연적 보상 .67,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86, 자기 대화 .81, 신념과 가정 분석 .84)였다.

2.3.5 진로적응력

진로적응력은 Savickas와 Profeli [23]가 개발한 Career Adapt-Ability Scale을 탁진국[24]이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의 4점 척도로, 진로관심 6문항, 진로통제 6문항, 진로호기심 6문항, 진로자신감 6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소 24점부터 최대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탁진국[24]의 연구에서 .93(관심 .85, 통제 .80, 호기심 .82, 자신감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95(관심 .84, 통제 .86, 호기심 .84, 자신감 .91)였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KNU_IRB_2018-51)을 받고 해당 학과의 학과장으로부터 연구 시행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기입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 자기조절, 셀프리더십, 진로적응력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 편차로 파악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적응력의 차이는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파악하였다. 진로적응력과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는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파악하였고, 진로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파악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4세(범위 19~26세)였으며, 1학년은 27.0% (58명), 2학년은 25.1% (54명), 3학년은 26.0% (56명), 4학년은 21.9% (47명)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136명(63.3%)이었고,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59.1%(127명)이었다. 취미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는 5.6%(12명)이었다. 성격은 내성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36.7%(79명)이었고, 외향

적 35.3%(76명), 잘 모르겠다는 27.9%(60명)이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60%(129명)이었고, 보통 36.7%(79명), 나쁨 3.3%(7명)이었다. 경제 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5.3%(162명)이었고 전공 만족도는 '중' 또는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7.9%(103명), 47.4%(102명)이었다. 학업 성적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2.3%(134명)이었다. 입학의 주된 동기는 유리한 취업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4%(74명)이었다 (Table 1 참고).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적응력의 차이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성격,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입학의 주요 동기에 따라 진로적응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주관적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고($F=4.96, p=.008$), 전공 만족도가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하'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다($F=4.37, p=.014$). 학업 성적도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중'이나 '하'라고 응답한 경우보다($F=5.25, p=.006$), 입학의 주된 동기가 '적성과 흥미/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성적에 맞추어서/주위의 권유'로 인한 경우보다 진로적응력이 높았다($F=4.91, p=.008$)(Table 1 참고).

Table 1. Difference of Career Adapt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M±SD	(N=215) t or F(p) Scheffé test
Gender	Male	21 (9.8)	3.81±0.53	0.32(.757)
	Female	194 (90.2)	3.78±0.44	
Grade	Freshman	58 (27.0)	3.70±0.46	1.50(.217)
	Sophomore	54 (25.1)	3.77±0.43	
	Junior	56 (26.0)	3.78±0.51	
	Senior	47 (21.9)	3.89±0.38	
Religion	Yes	79 (36.7)	3.77±0.47	-0.26(.797)
	No	136 (63.3)	3.79±0.44	
Personality	Introverted ^a	79 (36.7)	3.76±0.38	4.96(.008) b>c
	Extroverted ^b	76 (35.4)	3.90±0.53	
	Not sure ^c	60 (27.9)	3.66±0.40	
State of health	Good	129 (60.0)	3.82±0.45	1.04(.354)
	Average	79 (36.7)	3.72±0.45	
	Bad	7 (3.3)	3.74±0.34	
Economic background	Affluent	31 (14.4)	3.90±0.59	2.16(.118)
	Average	162 (75.4)	3.78±0.43	

Major satisfaction	Difficult	22(10.2)	3.64±0.36	4.37(.014) a>c
	High ^a	102(47.4)	3.87±0.45	
	Average ^b	103(47.9)	3.71±0.43	
Academic achievement	Low ^c	10(4.7)	3.57±0.45	5.25(.006) a>b,c
	High ^a	56(26.1)	3.93±0.43	
	Average ^b	134(62.3)	3.75±0.44	
Main motivation for admission	Low ^c	25(11.6)	3.61±0.48	4.908(.008) a>c
	Aptitude and interest /Meaningful profession ^a	81(37.7)	3.90±0.44	
	Better chance at employment /Stable job ^b	98(45.6)	3.72±0.44	
Work experience	Based on High school grades/Advice from others ^c	36(16.7)	3.68±0.45	1.40(.162)
	Yes	67(31.2)	3.85±0.47	
	No	148(68.8)	3.75±0.44	
Main advisor	Supervising professor	11(5.1)	4.06±0.40	1.75(.158)
	Parents	98(45.6)	3.77±0.46	
	Colleagues	89(41.4)	3.78±0.43	
	Online sites etc	17(7.9)	3.98±0.37	

3.3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자기조절, 셀프리더십, 진로 적응력 정도

진로 적응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8점이었다.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합리적 유형인 경우는 72.6%(156명)로 평균 3.67점 이었으며, 직관적 유형인 경우는 17.2%(37명)로 평균 3.25점, 의존적 유형인 경우는 10.2%(22명)로 평균 2.87점이었다. 진로 자기조절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이었고, 셀프리더십 정도는 평균 3.59±0.44점이었다(Table 2 참고).

Table 2.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 Career Self Regulation, Self Leadership and Career Adaptability

Variables	Classification	Items	n(%)	M±S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ll	30		
	Rational style	10	156 (72.6)	3.67±4.33
	Intuitive style	10	37 (17.2)	3.25±0.49

Career self-regulation	Dependent style	10	22 (10.2)	2.87±0.61
	All	25		3.27±0.55
	Self leadership	All	35	3.59±0.44
Career adaptability	All	24		3.78±0.45
	Career interest	6		3.83±0.51
	Career control	6		3.86±0.52
	Career curiosity	6		3.76±0.49
	Career confidence	6		3.67±0.57

3.4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자기조절, 셀프리더십, 진로 적응력 간의 상관관계

진로 적응력은 진로 자기조절($r=.65, p<.001$), 셀프리더십($r=.69, p<.001$)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유형($r=.52, p<.001$), 직관적 유형($r=.22, p<.001$)과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의존적 유형($r=-.22, p<.001$)과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높고, 진로 자기조절,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 적응력이 높았고, 의존적 유형이 높을수록 진로 적응력이 낮았다(Table 3 참고).

Table 3. Correlation among Career Decision Type, Career Self Regulation, Self Leadership and Career Adaptability

Variables	Rational Type	Intuitive Type	Dependent Type	Career self-regulation	Self-leadership
$r(p)$					
Rational Type					
Intuitive Type	-.03 (.625)				
Dependent Type	-.02 (.792)	.11 (.100)			
Career self-regulation	.55 (<.001)	.25 (<.001)	.01 (.877)		
Self leadership	.63 (<.001)	.19 (.005)	.07 (.282)	.75 (<.001)	
Career adaptability	.52 (<.001)	.22 (<.001)	-.22 (<.001)	.65 (<.001)	.69 (<.001)

3.5 진로 적응력 영향 요인

일반적 특성 중 진로 적응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주관적 성격,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입학의 주된 동기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더미변수로 변환한 후,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과 함께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오차의 자기 상관 검정에서 Durbin Watson 통계량은 1.89이었으며, 공차 한계(tolerance)는 .144~.658로 0.1이상을 넘어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520~6.926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26.03, p<.001$), 셀프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고, 전공 만족도 '중' 이상,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자기조절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요인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을 62.7% 예측 설명하였다(Table 4. 참고).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Adaptability

		(N=21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97	.26		3.76	<.001
Self leadership		0.47	.08	.45	6.22	<.001
Major satisfaction	High	0.28	.10	.31	2.69	.008
	Average	0.29	.10	.32	2.84	.005
Career decision-making Type	Rational type	0.14	.06	.14	2.30	.023
	Intuitive type	0.10	.04	.11	2.36	.019
	Dependent type	-0.19	.04	-.26	-5.45	<.001
Career self regulation		0.16	.06	.19	2.75	.007
Subjective Personality	Introverted	-0.01	.05	-.02	-0.29	.771
	Extroverted	0.06	.05	.07	1.23	.219
Academic achievement	High	0.07	.08	.07	0.89	.377
	Average	0.06	.07	.07	0.96	.337
Main motivation for admission	Aptitude and interest/ Meaningful profession	-0.02	.06	-.02	-0.31	.761
	Better chance at employment /Stable job	-0.08	.06	-.09	-1.39	.167

$R^2=62.7$ Adjusted $R^2=60.3$ $F=26.03$ $p<.001$ Durbin-Watson=1.89

Reference standard: Subjective Personality(Not sure=0), Major satisfaction(Low=0), Academic Achievement(Low=0), Main motivation for admission (Based on High School grades/Advice=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적응력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은 3.78점이었으나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의 3.95점[10], 3.72점[12]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일반대학생의 3.60점 보다는 높았다[25]. 진로적응력이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특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8], 전공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해 취업기관의 특성에 노출되고 경험 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이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되나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진로통제는 3.8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로관심 3.83점, 진로호기심 3.76점, 진로 자신감 3.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의 하부영역인 진로통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력과 신념을 의미하며 진로를 위한 주도적 의사결정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자신감은 도전적인 과제, 문제해결적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신감이 요구되며, 자신감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반영한다[26].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면 진로적응성이 높아질 수 있다[27,28].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전공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자기조절능력 순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정도는 3.59점(5점만점)이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3.61점[18]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3.45점[29] 보다는 약간 높았다.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적응성 관련 심리적 특성 변인 중 셀프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는 연구결과[8]와 유사하다. 간호학과의 임상실습이 포함된 교육과정과 타 학과에 비해 많은 학습량, 국가고시 등으로 인해 이를 조절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반대학생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러 간호학과에서는 간호교육인 증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항목 중 '간호 팀 내 리더십을 발휘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비교과활동을 운영하고 있다[30]. 이와 더불어 진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진로관련 비교과과정도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진로 선택을 하며,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진로태도가 성숙하며, 전공만족도가 진로과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므로[31], 이를 높이는 방안 마련을 통해 신규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일 때 진로적응력이 낮았고, 합리적 또는 직관적 유형일 때 진로적응력이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합리적, 직관적 유형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14].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존적 유형의 진로적응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존적 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늦추고[32], 진로정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므로[14], 개별적인 진로 지도를 통해 합리적, 직관적 유형의 긍정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 진로적응력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진로자기조절 정도는 3.27점(5점 만점)이었는데, 이는 일반 대학생의 3.10점[17]보다 높은 수준이다. 관련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간호학과의 학습성과기반 평가, 팀 활동 등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수법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유형은 대부분이 합리적 유형이었고, 일반대학생보다도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 진로적응력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다.

간호대학생이 진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희망 기관의 유형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임상이 86.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공무원 4.3%, 보건소 3.9%, 기타 보건의료 분야 2.3%로 나타났다[33]. 다양한 진로가 있으나 충분한 탐색의 기회 없이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이 임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을 선택한 많은 간호대학생의 1년 이내 이직률은 33.9%로 일반대학생의 1년 이내 이직률 27.7%[34] 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학생에 비해 진로를 미리 결정하고 임상실습, 국가고시 등을 통해 진로적응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직률은 더 높게 나타나므로, 간호학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지도 방법의 점검 및 임상실무 현장의 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한 단순한 진로탐색은 진로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7], 진로안내책자 발간과 같은 단순한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보다는 선배 멘토와의 만남, 취업 전 인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진로적응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 또한 심리적 특성 변인만 조사하였으므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에 대한 다양한 변인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은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는 ‘중’ 또는 ‘상’일 때,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점수가 낮을 때, 진로자기조절이 높을 때,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유형,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유형 점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성격,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입학의 주된 동기에 따라 진로적응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진로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간호대학생의 성격과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입학의 주된 동기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을 차별화하고, 세부적으로 셀프리더십과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도출을 통해 진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K. M. Sin, J. O. Kwon & E. Y. Kim.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New Graduate Nurses' Reality Shock.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3), 292-301. DOI: 10.11111/jkana.2014.20.3.292
- [2]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4). *Hospital nurses staffing state survey*.
- [3] I. O. Moon & G. W.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 [4] J. I. Choi, T. Y. Han & Y. H. Lee. (2014).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3(5), 113-126.

- [5] K. H. Seo, W. J. Kwak & J. H. Shim. (2015). The Influence of Career-Interrupted Women'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bility: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2(4), 58-87.
- [6] S. H. Lee, K. B. Nam & S. M. Cheon.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7(1), 81-107.
- [7] S. Sung & S. Bae. (2015).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9), 277-299.
- [8] E. Park & S. Lee. (2018). A meta-analysis of Antecedent Variables on Career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 Student.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8(3), 35-56.
- [9] E. M. Mun & J. H. Lee. (2016). A Study on difficulties of the new employees of the job world on the process of job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3),
- [10] Y. J. Lee, H. M. Yang & K. J. Lee. (2019). Effects of career identity,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0), 1-14.
- [11] C. E. Houghton. (2014). 'Newcomer adaptation': a lens through which to understand how nursing students fit in with the real world of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3, 2367-2375.
DOI: 10.1111/jocn.12451
- [12] Y. M. Kim.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 self-directed learning and Vocational adaptability o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October, 467-480.
DOI: 10.14257/ajmahs.2017.10.81
- [13] Y. M. Jung. (2018). A Longitudinal Study on Nursing Students' Career Identity, Career Adaptation, and Satisfaction with Maj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8), 89-103.
DOI: 10.22251/jlcci.2018.18.18.89.
- [14] W. H. Hwang & K. E. Bae. (2017). The Effect of Personality Type and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8(3), 1267-1255.
- [15] V. A. Haren.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16] M. J. Kim & B. W. Kim. (2014). The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Self-Regul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Rational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3), 27-45.
- [17] Y. J. Shin & J. R. Jun. (2017).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trength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6, 105-133.
- [18] E. J. Oh & J. H. Kong. (2019). A Study on Self Leadership,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7(1), 135-144.
DOI: 10.15268/ksim.2019.7.1.135
- [19] V. A. Harren.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20] H. J. Koh. (1993).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1]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 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DOI: 10.1108/02683940210450484
- [22] Y. K. Shin, M. S. Kim & Y. S. Ha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313-340.
- [23] Savickas & Profeli. (2009). Career Adapt-Ability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39-250.
- [24] J. Tak.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712-715.
- [25] J. H. Lee & C. Kim. (2018). The Effect of Character Strength, Occupational Engagement on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foring in Multimedia Content.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9(5), 861-870.
- [26] Y. Cho & J. Jeong. (2017). A Meta-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3), 129-150.
- [27]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28] Y. J. Shin & E. S. Lee. (2018). Mediation of Career Adaptability between Regulatory Focu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ith College Students-Focusing on the Career Construction Model of Adapt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31(2), 91-112.

- [29] M. K. Jeon & J. W. Oh. (2019). Self-leadership, Self-determin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ac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Crisisonomy*, 15(3), 71-81.
- [30]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 [31] T. J. Jang & M. Moon.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2(4), 344-352.
- [32] S. O. Kim.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210-219.
- [33]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Survey of Nurses' Employment*.
- [34]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2016). *Survey on new recruitment condition*.

박 소 영(Soyoung Park)

[경력]



- 1999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18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정신건강간호, 간호교육

· E-Mail : vasila7479@gmail.com.

조 옥 희(Ok-Hee Cho)

[경력]



- 199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간호, 간호교육

· E-Mail : ohcho@kongju.ac.kr